

사회복지시설 탐방 ⑪ 나지르 마을 원장 최태영

가족적인 분위기로 어르신들에게 사랑 실천



나지르마을은 노인보호시설로 자연 속에서 어르신들의 '피정'의 장소가 되기 위해 1999년 9월 설립된 양로시설이다. (원인은 최태영 원장)

나지르마을(원장 최태영)은 노인보호시설로 자연 속에서 어르신들의 '피정'의 장소가 되기 위해 1999년 9월 개원한 양로시설이다. 나지르마을은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 607번지에 위치, 주변이 자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다. 나지르마을은 최태영(46·원안사진) 원장을 비롯, 9명의 할머니가 생활하고 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어르신으로 현재 80%의 수급대상자가 입소해 있고, 나머지 노인은 유료로 입소해 있다. 최 원장은 "나지르마을은 현재 10명 이내의 할머니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원에 제한을 둔 이유는 시설사용을 극대화하고 할머니들을 더욱 세심히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건물을 지을 당시 노인들이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방마다 화장실을 만들어 운통효과와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나지르 마을은 인가와 떨어진 외딴곳에 위치해 있지만 처음 시설 건립 당시 주민들의 선입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최 원장은 "마을 주민들이 양로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무조건적인 반대가 심했다"며 "물론 최근에는 마을주민들과의 잦은 교류로 인해 정영수 이장을 포함 주민들이 시설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지르 마을은 한달 평균 500여 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 최 원장은 "심야간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약 1km 정도의 비포장 도로를 거쳐야만 한다. 최 원장은 "시설을 찾는 분들이 도로가 좋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난해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포천시에서 포장을 해준다고 했지만 농번기 등이 겹쳐있어 시기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나지르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무료하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할머니 작품전 ▶수지침, 솜뿔 ▶수지침 봉사자와 함께 ▶그림그리기, 퍼즐, 종이접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노인들이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최 원장은 "연중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일정에 맞춰 시설을 방문해 주고 있어 노인들의 활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나지르 마을에 도움을 주는 단체는 ▶선단화목교 등의 복음봉사 ▶동두천·포천·동대문·시흥·철원성당·반석회 등의 환경정리 및 청소 ▶차태훈병원·신성한의원·포천시보건소 등의 의료봉사 ▶영선미술실·한미미술(남마사지) 등의 기능봉사 ▶종이접기(보람이네, 정원놀이방, 새봄놀이방)·구연동화 및 레크리에이션(소리여울, 포천의제2기, 죽부인회)·장구교실(박영자 선생) 등의 문화봉사가 계획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최 원장은 "설립초기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온 봉사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시설의 후원에도 깊은 관심을"을 당부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82-01-0449-740(에 음주:나지르마을) 문의: 031-533-0032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 천 심 터



석혜승
보문정사주지

승배로서 민인류를 평화롭게

누군가를 존경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점차 어른이 없어지고, 어려운 스승이 없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승배라는 말은 보통 절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섬김이라는 말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이야기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신도'라고 하고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듯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승배의 의미이다. 승배(崇拜)란 존경하고 감사를 표한다는 의미이다. 승배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고, 미움이 있을 수 없고, 교만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을 낮추고 승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며 꼭 필요한 덕목이다. 어른이 없고 스승이 없으면

수많은 반목과 갈등을 초래한다. 스스로 옳다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하는 곳에 자비와 평화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많은 불자들이 연등을 달고 부처님을 승배하는 이 날이 유독 불자들의 축제는 아니다. 모두가 부처라는 그분의 가르침은 그 의미가 깊고도 오묘하다. 그렇다고 모두가 승배의 대상이란 뜻은 아니다. 조건 없는 승배가 아니라 존중하고 승배함으로 본성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 날은 불자들의 축복이 아니라 인류전체의 축복이기도 하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제3회 상공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6월, 3개 대학 축제 열린다

근로자의 날 맞아 노사정 화합 대진대·중문의대·경북대학 축제 개최 협의

포천상공회의소(회장 김인만)는 지난 1일 포천종합고등학교운동장에서 제3회 상공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정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는 포천상공회의소 가맹기업과 근로자 등 8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체육행사로 나눠 실시됐다. 1부 행사에서는 내빈들의 축사에 이어 포천교통 기사 오 나포레옹, 에취켓 장규진 대표, 포천시청 기업지원담당 김익식 계장의 노·사·정 공동선언문 낭독 등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또 2부 행사는 ▶각 업체간 축구·족구 등 구기종목 결승과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및 화합의 한마당 등의



제3회 상공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맞아 포천종합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근로자들이 명랑 운동회를 펼치고 있다.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종합우승팀에게는 이번 대회부터 우승기가 주어지게 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대진대학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경북대학을 아우르는 3개 대학 축제 가 오는 6월 개최예정인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포천시는 지난 25일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이우성 포천시자치행정국장장과 윤석희 포천시문화공보담당관, 김찬기 대진대학교학생처장, 홍을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사무처장, 김경복 경북대학 학생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개 대학 축제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축제 개최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사전모임으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축제명칭 ▶개최시기 ▶행사 주



지난 25일 포천시 자치행정국장실에서 관학협력 위한 3개 대학 축제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시와 각 대학 실무자들이 함께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구암사포천시에 이동용품 등 기증

포천시 이동면 연곡4리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구암사(주지 지율스님)는 신도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이동용품을 포천시에 기증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포천시청역도팀 이우성 선수

포천역도의 제2부흥기 이룩하겠습니다



이우성 선수
포천시청역도팀

포천시청역도팀 이우성 선수(30)가 지난 3월 25일 대한민국의 체육훈장 거사장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28일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개최된 2005년도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것에 대해 "지난해 부상 이후에 올랐던 것"이라며 "앞으로 과격하고 심리적인 부분을 더 공부해 지도자의 길을 걷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뒤, "고교시절 양영길, 조창호 선수와 함께 부흥기를 이룩했던 것처럼 포천 역도가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대한미용사회 포천시지부 제 15차 정기총회 및 위생교육



(사)대한미용사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송석구)는 지난 25일 포천시여성회관에서 제15차 정기총회 및 위생교육을 개최했다.

(사)대한미용사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송석구)는 지난 25일 포천시여성회관에서 제15차 정기총회 및 위생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윤남욱 전 지부장 등 내빈과 포천시지부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1부 개회식과 2004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2005년도 사업계획(안) 승

인 등의 순으로 진행된 2부 본 회의로 진행됐다. 본 회의에서 보고된 2004년도 사업실적 보고에서 대한미용사회 포천시지부는 2004년 ▶5월 어린이날 행사 ▶5월 경로잔치 ▶7월 기술세미나 ▶8월 여성회관 ▶10월 중앙회 미용대회 ▶12월 포천시 미용인의 밤 ▶2005년 1월 동남아 지원 피해 바자회 ▶2월 불우이웃돕기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2005년도 사업계획은 ▶5월 단합대회 및 환경보호 행사 ▶7월 기술세미나 개최 및 자원봉사 활동 ▶8월 불우이웃돕기 ▶10월 미용경기대회 참석 ▶12월 세미나 및 미용인의 밤 행사 등이다. 한편 이날 정기 총회를 마친 (사)대한미용사회 포천시지부 회원들은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사)대한미용사회 포천시지부는 1993년 중앙회로부터 분리돼 현재 포천시 전지역에 16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식물기르기 ⑫-월마 (Wilma)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마의 정확한 이름은 월마(Goldress Wilma)이다. 월마는 연두색 잎사귀가 뾰족하게 돌아 한 그루의 나무를 옮겨 심은 듯한 식물이다. 월마는 집안에 몇 그루만 키워도 산림욕 효과를 볼 수 있다. 피톤치드(Phytoncide)라는 산림욕 효능근원인 물질을 발산하여 주변의 해로운 미생물을 없애주며 머리를 맑게 하고 탁한 실내공기, 미세먼지 등 화학작용에 탁월한 식물이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라서인지 햇빛을 좋아하며 빛에 비친 월마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도 하며 집안에



정선교
주부영예기자단 가신지부장
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
플라워디자인 강사

user0316@nate.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29) 포천의 정문(抱川之旌門)

'정문(旌門)'이란 충신 효자 열녀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의 집 앞에 세운 붉은 문을 말한다. 현존하는 정문으로는 함포 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어룡리 273-3번지 소재 오백주(吳伯周) 효자의 정문인데 1723년(경종3년) 건립되었던 것이다. 조선조 숙종 때 효자 오백주(1643~1711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또 증손인 오수진(吳壽晉) 부부의 효자, 열녀 정문과 오몽량(吳夢樑)의 아내 문화유씨의 열녀 정문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문화유씨는 오백주의 증조모가 되신다. 고로 오백주, 오수진의 부부, 문화유씨 등 네 분의 정문이 함께 모셔진 곳이기도 하다. 한 가문에서 네분의 효자 열녀가 탄생하였음은 보기 드문 일로서 내 고향 포천의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효자 오백주는 효자는 물론,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였던 충신이었으며, 그의 아내도 효자이자 충신인 그가 죽자 함께 순사하였다는 전설을 남겨 어룡리를 지나는 길손의 웃거림을 여미게 한다. (용연사원에 배향되는 서원말 조경선생의 가르침으로 축적됨에 따라 축적단을 쌓고 호랑이 등을 타고 꿀을 구하고 산삼을 구한 얘기는 한국의 대표적 호효(虎孝) 설화로 유명하다.) 함포유적 제9호로 지정된 신급 효자 정문은 1703년(숙종29년) 내촌면 읍원리 667에 건립되었는데,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신급은 6학자로 임란시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전사한 신립 장군의 형님이다.(1543년~1592년) 어머니가 임진왜란시 왜적을 피해 이천 언덕에서 추락 사망하자 목놓아 통곡하며 절벽에서 투신하여 자결하고 어머니의 뒤를 따른 효자이다. 품성이 강직하고 사학(史學)에 밝았으며 강한 의지와 충성이 지극하여 감역, 순변사 등을 지냈으나 변방으로 호종간 두 형님과 두 아우

의 왕사로 인한 죽음을 슬퍼하고 어머니의 뒤를 따른 효성은 유명하다. 죽은 10년 뒤 정6품 감역에서 3품인 사헌부 정랑으로 추서되었으며 5대손인 신윤하(申胤夏)도 효성이 지극하여 고종2년(1865년)에 효자정문이 내려져 나란히 모셔졌다. 함포유적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는 권중정문(權宗臣旌門)은 조선중기에 세워졌는데, 그 효를 고모리에 있다. 문신 권중(權宗, 1554년~1592년)의 권중은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 권근의 후손이며 권율장군의 사촌형님이다. 임진왜란시 용진분부 끝에 아들 권(權)과 함께 전사하였다. 개령현감 등 여러고을 수령을 지냈으며 나라에서는 충민공(忠愍公)의 시호를 내렸다. 충남 금산군 제면면 자곡리에는 그의 순의비(殉難碑)가 세워졌다. 무리는 나라가 위급할 때 권씨 중종이 모두 함께 충성을 다한 충절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할 뿐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